

비극의 평행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해방 후 한국의 교훈

2021-10585 설한동

1945년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의 현대사는 깊은 비극과 혼돈의 역사 그 자체였다. 한국의 해방은 그 자체로 역사의 완결이 아니라, 분단과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근대 국가 수립을 향한 비극적인 혼란의 시작이었다. KBS의 다큐멘터리 <기억, 마주서다>의 5부 “해원”에서는,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로 인한 상처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 지속되었는지를 증언한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웠던 한국의 정국은 오늘날 유사한 지정학적 상황에 처해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게 교훈을 남긴다. **역사의 정의를 확립하지 않고는 안정된 국가 수립은 불가능하다.**

문경 석달마을 학살 사건과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은 한국의 국가 형성 과정이 얼마나 잔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새로 수립된 정부는 이념적 차이 또는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을 가지고 자신이 규정한 정치적 적대자들을 재판 없이 처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폭력의 대상이 된 것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라는 기관이 가장 무자비한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9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휴전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를 설득해 아랍 국가들이 지지하는 휴전안에 동의하도록 했다. 이 계획은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권력을 이양해야 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트럼프의 제안은 지금까지의 대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받지만, 하마스나 이스라엘 극우 정당들이 휴전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발생한 해방 정국의 혼란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운명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수십 년간의 저항과 외부의 억압은 팔레스타인 사회에 큰 상처와 분열을 낳았다. 극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독립 국가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그 국가는 건국 초기의 한국처럼 극심한 분열과 외부의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맞이할 것이다. 서안 지구의 자치정부와 가자 지구의 하마스로 갈라진 팔레스타인의 현실은, 외부의 억압이 견인 자리에 더 혹독한 내부의 분열이 짙을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부의 정적이나 비판 세력을 ‘반역자’나 ‘적의 협력자’로 규정짓고 폭력적으로 제거한다면, 이는 한국에서 일어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국가가 자국민에게 무기를 겨누는 순간, 국가는 그 존재의 정당성을 상실한다. 국가의 안정은 외세에 맞서는 군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신뢰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길은 단순히 영토를 확보하고 정부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경험이 경고하듯, 진정한 국가 건설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훗날 수립될 팔레스타인 정부는 외부 세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건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폭력과 부당한 희생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 특정 세력의 희생을 묵인하거나 진실을 은폐한다면, 그 상처는 끓아 터져 국가의 미래를 끊임없이 위협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세운 국가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한국의 유가족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밝혀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억울한 죽음 위에 진정한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

다큐멘터리 ‘해원’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통해 국가의 본질에 대해 묻는다. 이제 그 질문은 고스란히 팔레스타인의 미래로 향한다.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신음하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안정적인 정부는, 과거의 모든 비극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희생자들의 찢어진 마음을 꿰매주는 ‘해원(解冤)’의 과정을 거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한국이 걸어온 고통의 길을 팔레스타인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